

# “나눔은 기업의 의무이자 제 인생의 원칙”

정현택 ㈜대창식품 대표

목포 세쌍둥이 가정 1천만원 기탁  
3년간 1억 '나눔명문기업' 가입도  
인재 육성·복지 확산 역할 등 귀감

“나눔은 기업의 의무이자 제 인생의 원칙입니다.”

정현택 ㈜대창식품 대표가 28일 목포시청에서 세쌍둥이 출산 가정에 출생축하금 1천만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출생축하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세쌍둥이 가정에 전달됐다.

정 대표는 “아이들이 지역의 희망으로 자라 나길 바란다”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대창식품은 지난 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객기부 프로그램 '나눔명문기업'에 가입



정현택(오른쪽) ㈜대창식품 대표가 28일 목포시청을 찾아 조석훈 부시장에게 세쌍둥이 출산 가정 출생축하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해 3년 내 1억원 기부를 약정했으며 이번 기탁으로 약정액을 모두 완납했다.

'나눔명문기업'은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일정 기간 내 해당 금액을 약정한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정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6년 고객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2019년까지 1억원 이상을 기부했

으며 꾸준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30여년간 목포상공회의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산업 발전의 토대를 다졌고 지난해 제25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해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일 '2025년 목포시 시민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현재 오는 2028년 창립 100주년을 앞둔 공생재단 100주년 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그는 지역 인재 육성과 복지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번 기탁 외에도 세쌍둥이 가정의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산부인과와 협력해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현택 대표는 “기업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음”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부모님께 힘이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목포의 미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 故 김홍빈 평전 기증반아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전남 ‘(사) 김홍빈과 희망만들기’로부터 ‘도전과 나눔의 희망전도사, 김홍빈’ 평전 200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도서 전달식에는 이정선 교육감과 류재선(사) 김홍빈과 희망만들기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를 극복하고 인류애를 실천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삶과 도전정신을 지역 청소년에게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故 김홍빈 대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장애인 산악인으로, 신체적 한계를 넘어선 끊임없는 도전과 나눔의 삶을 보여줬다.

기증 받은 평전은 지역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예정이다.

/박선옥 기자



## 전남도 '계약업무 담당자 연찬회'

전남도는 28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도, 시·군·출자·출연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계약업무 담당자 연찬회'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최기웅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 대표가 '계약의 핵심과 실무'를, 한길옥 호남공공재정연구소 대표가 '지방계약 감사 지적사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과 감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며 계약 담당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도왔다.

/김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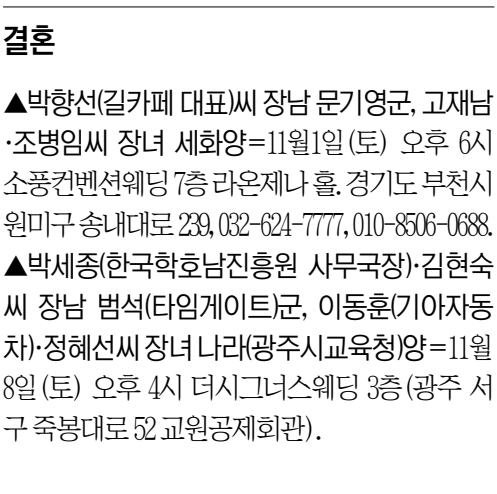
## 호남대 '기술이전 우수교수 표창'

호남대학교는 28일 대학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기술이전 우수교수 표창 시상식'을 열고 이상현(사전 왼쪽)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장춘옥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이전 실적을 독려하고 기술사업화 성과에 기여한 교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현 교수는 첨단 ICT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다수의 특허 출원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대학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섰고, 장춘옥 교수는 사회복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기술 개발과 이전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박현진 기자



## 부음

▲이화자씨 별세, 정현진(KIA 타이거즈 경영지원팀 프로씨) 조모상=발인 30일(목) 동국대학교 일산장례식장(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식사동) 031-961-9400.

## 광주소방본부 '의용소방대 화합 한마음축제' 성황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8일 남구 효천물빛노닐터 운동장에서 '제36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및 한마음체육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의용소방대원의 소방기술 숙련도 향상과 봉사정신 함양, 소방가족 간 화합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의용소방대원 700여명과 소방공무원 60여명, 내빈 40여명 등 8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 앞서 광주소방악대의 축하 공연으로 식전 분위기를 달궜으며, 개회식에서는 모범의용소방대원 2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열정이 광주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다. 의용소방대의 자긍심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서는 2025년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한 3개 팀이 소방호스 전개 및 화수, 심폐소생술 등 뛰어난 소방기술을 선보였다.

또한 풍선기둥타기, 단체줄넘기, 에어볼 릴레이 등 다양한 한마음 체육행사가 이어져 대원 간 화합의 한마당이 됐다.

/변은진 기자

## ‘전남 농촌지도자회원 한마음대회’ 성료

‘전남 농촌지도자회원 한마음대회’가 28일 25국제농업박람회 주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슬기찬 농촌지도자!’를 주제로 열린 한마음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윤병대 나주시장, 전남도의원, 농촌지도자 회원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회원 표창, 비전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제농업박람회 전시장을 함께 관람하며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선 지역사회 발전과 농촌진흥에 헌

신한 우수 회원과 공무원이 전남지사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상, 한국농촌지도자전남도연합회장상 등을 받았다.

최원섭 한국농촌지도자 전남도연합회장은 “지역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가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더욱 단합해 ‘힘찬 도약 전남농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성과 혁신으로 전남이 AI 농업을 선도하는 미래 생명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 기자

## 동신대, 전남도 정주형 유학생 진로·취업 특강

동신대학교는 “최근 전남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취업 특강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동신대 RISE사업단 글로벌인재허브센터 주관으로 대정 2관 유학생 라운지에서 열렸다.

한국어트랙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취업시장 이해 ▲전남 특화 산업 직무 분석 ▲커리어 로드맵 설계 등을 주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센터는 AI 번역 시스템을 활용하면 다국어 수업을 통해 유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한국 내 외국인 채용 현황과 산업별 고용 동향, 전남 정



작형 커리어 패스를 함께 제시했다.

학생들은 전공과 감성을 기반으로 직무 매칭 실습과 커리어 설계를 진행하고 ChatGPT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비자 안내를 배우며 한국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박현진 기자

## 정철원 담양군수,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 응원

담양군은 28일 “정철원 담양군수가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를 기원하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나주 유치 추진에 대한 지역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 수소를 이용해 청정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전력산업의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정철원 군수는 “나주에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유치돼 전남이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담양군도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 화순전남대병원, 31일까지 ‘나눔 도서바자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28일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병원 1층 로비에서 ‘가을 빛 나눔 도서바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보문고 창원점과 협력해 마련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성인·아동 도서를 인타넷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문구류, 필기구, 액세서리, 일상용품 등도 함께 선보인다.

현장 판매 외에도 QR코드를 활용한 사전 주문 시스템을 운영해 환자과 보호자, 내원객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판매수익 일부는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정준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환자 치료뿐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치유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병원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 박경미 도의원, 여수섬박람회 성공 기원 챌린지 동참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경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4)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박경미 의원은 “전남은 전국 섬의 65% 이상을 보유한 섬의 수도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생태·문화·공동체 가치를 세계로 뻗어나가게 할 절호의 기회”라며 “박람회가 섬의 비전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수를 비롯한 전남의 아름다운 섬들이 세계에 조망되고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모든 도민이 한



마음으로 박람회의 성공을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모정환 도의원을 지목했다.

/김재정 기자